

2부 평화시장의 괴로움 속으로

인터뷰 2회차

2020년 2월 24일(월) 14:00~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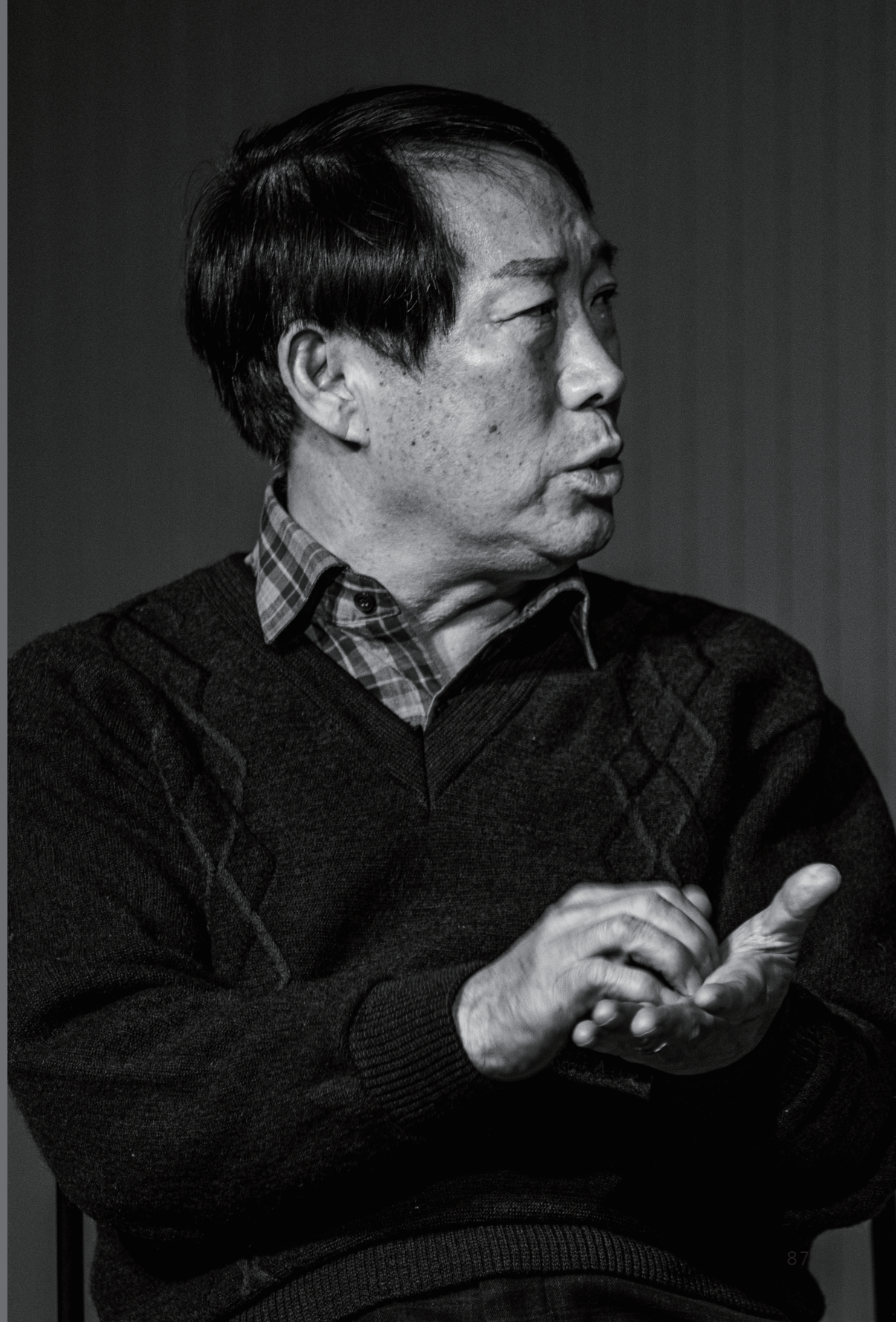
전태일 친구들

김영문

전태일이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제 나이가 열일곱 살 정도였습니다.

만나면 근로기준법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 친구가 친목회를 만들자고 해서 '바보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 평화시장으로의 진입

이수호 예,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가 중국을 휩쓸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우리도 서로 조심하고, 어떻게든지 빨리 막아내고 안정을 되찾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죠. 저희 전태일기념관도 그런 기조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노동구술기록사업은 계속해야겠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 힘든 날이긴 하지만 저희가 소규모이니까 지난번처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태일평전』에 보면 2부에 해당하는 「평화시장의 괴로움 속으로」라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 흔쾌히 참석해 주신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인 『전태일평전』의 2부는 평전을 접한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었나, 할 정도인데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가혹한 노동환경과 봉제노동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비참한 일상,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이었죠.

오늘은 『전태일평전』의 기록과 함께 열악한 노동환경의 직접 당사자였던 여러 선생님들께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평화시장의 봉제산업 구조와 봉제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그리고 그에 처했던 봉제노동자들의 삶. 이러한 주제들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수호입니다. 친구분들께서도 본인 이름 정도, 가볍게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씨부터.

이승철 이승철입니다

김영문 네. 김영문입니다.

최종인 최종인입니다.

임현재 네. 임현재입니다.

이수호 예.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요. 평전의 2부는 1970년 당시, 평화시장과 인근 동화시장, 통일상가의 산업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봉제산업의 구조는 대체로 시장 건물 2층과 3층에 있는 작업장에서 제작된 옷을 1층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시장 인근이 당시 전국 기성복 수요의 7~80%를 충족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한 활황세였고, 전국을 상대로 공급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듣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께서 평화시장을 처음 알게 된 과정, 즉 어떻게 알게 됐는지입니다. 업체광고나 지인, 친인척이 소개한 것이라든지. 또는 언론이나 정부의 홍보 등등. 그리고 당시 평화시장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가서 일하고 싶었던 곳이었는지. 아니면 가혹한 노동환경을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산업화 초기에 산업역군으로 어떤 자부심이나 보람 같은 걸 느꼈는지 등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평화시장에 취업하게 된 동기, 어떻게 평화시장까지 오게 됐는가, 그렇게 된 과정들을 자기 이야기 중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평전의 내용을 따라가지만 우리 구술의 핵심은 선생님들의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어 정리를 해보자면, 당시 평화시장 이외에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

들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 또 평화시장이 기술을 배우고 작업장을 열어서 평생직장으로 삼을 만한 곳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위해 잠시 거쳐 지나가는 임시직 정도로 생각했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취업을 포기한 당시 청소년들이나 청년 세대들, 이른바 거리의 천사들이 종사하던 일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평화시장에 오기 전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처음에 평화시장으로 오기까지의 과정과 평화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임현재 선생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임현재 네. 제가 평화시장에 오게 된 방법은 친구 소개였습니다. 김영율이라는 친구. 고향 친구예요. 나이는 같은데 생일이 이틀 빠른 형이기도 하고.

이수호 몇 살 때였죠?

임현재 제가 열여덟 살이나 열일곱 살쯤 아마 그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기록에서 보니까 68년에 갔다고 돼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고, 66년 정도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11월 13일, 그날로부터 역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 친구의 소개로 일단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일할 때의 느낌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계셔서 잠자리나 먹고사는 자리는 일정했지만 일하는 것은 떠돌이나 마찬가지로였고. 평화시장에 가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하고, 한 달이면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또래 여성근로자도 있다는 게 (웃음) 우선 참 좋았고.

그리고 기술을 배우면 나중에 잘살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도 좋았고. 그래서 난 모든 것이 참 좋다고 느끼고 있었고. 일도 오히려 평화

시장 가기 전에 했던 노동 강도에 비하면 조금 쉬운 일이었고.

이수호 열여덟 살쯤에 평화시장 들어가고, 그전에는 떠돌이 생활처럼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그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임현재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 될 나이 때, 저는 이웃집에 가서 머슴 비슷한 일을 1년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로 상경을 했었고. 그때 나도 부모님 따라서 가야 된다고 핑계대고 그냥 갔어도 됐는데, 그때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하여튼 난 가족과 떨어져서 머슴으로 1년을 보냈어요.

그런 후에 서울에 와서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지금 서대문구청 앞에 홍수로 하천이 옮겨가서 생긴 하천 부지에 천막으로 집을 짓고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에 부모님이 동생들 데리고 오글오글 살더라고요. 판자로 달아 낸 부엌 하나, 방 한 칸. 거기에서 우리 육남매하고 부모님하고 여덟 명이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그때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 난지도. 지금 월드컵경기장, 평화공원으로 만들었죠. 그곳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고철을 수집해다가 끼니를 연명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보다 먼저 아버지는 군대를 제대하고, 작은 농토에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여 노력을 했지만 여름 되니까 가뭄이 들어서 벼가 다 타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자루를 던져버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연탄 배달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탄 배달을 하시면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중학교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원서를 사서 왔는데 3일 만에 “다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하니까 중학교 가는 것을 포기해라” 했던 일화가 있고.

그래서 1년 머슴을 살고 서울에 왔는데 놀고먹을 형편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서 고철 수집하는 데에도 갔었고. 나중에는 친구 따라서 고물상에서 일도 했고. 어떤 때는 고물 리어카를 끌고 행상도 했고. 그 고물상이 돼지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돼지 사료를 짬밥이라고 그래요. 중국집이나 이런 곳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수집해오는 일도 했었습니다. 새벽 아주 일찍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명동에 와서 싣고 갔는데요.

그때 기억에 남는 건 영천고개가 굉장히 가파른 고개였어요. 거기를 리어카를 끌고 가면, 뒤에서 오십 원인가 받고 고개까지 밀어 올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을 쓰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돈은 사장 집에서 받아서 나오는 거니까 군것질을 하고 혼자서 킁킁대며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실은 엄청난 노동 강도의 일이었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평화시장 일은 정말로 쉬운 것 같다고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평화시장에서 길게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겨울, 이때는 꼬박 밤을 새우는 경우가 며칠씩 계속되다 보니.

이수호 대목 때?

임현재 네. 그때는 좀 힘들고 코피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보다는 시다들이나 보조들, 미싱사들, 이 사람들은 여자들인데 더 힘들게 일하는 걸 보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내가 건강하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덜 힘든 것 같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더 힘든 사람들 있으면 나는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일을 하다가 8월 15일 광복절 때 취직을 했었는데 그다음 해 12월 24일 해고가 됐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해고를 당했고. 굉장히 억울하고 씁쓸하고 그랬던 기억이죠.

그래서 다시 1년 넘게 놓고 있다가 세진사라는 곳에 취직이 되어서 갔어요. 거기에서 신기호 씨를 상사로 모시고 일을 했었습니다. 신기호 씨를 찾

아온 전태일이 저하고 알게 됐고 전태일과의 인연이 거기서 시작됐죠.

이수호 그러니까 전태일과 비슷하게 도시빈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임현재 그런 과정들을.

이수호 태일이처럼 리어카 뒤미이.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처음에 평화시장 가서 오히려 굉장히 좋았다, 이런 느낌인데. 당시 평화시장이 어려운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인식은 괜찮았던 모양이죠?

임현재 아니, 살다 보면 어린 여공들이나 미싱사들이나 가끔 사장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제일 억울한 것이 임금체불입니다.

보통 월급 제도가 어떠냐 하면 대체적으로 말일날 마감을 하는데, 그다음 달 10일에 월급을 주는 사람이 제일 빨리 주는 거예요. 그다음은 15일이나 20일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일에 주는 사람은 10일간의 공백이 있는 거죠. 그 기간의 월급을 다음 달에 주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떼어먹는 걸로 생각을 하죠.

한 달을 밀렸으면 40일분이 남아 있으니까 노동자가 그걸 받으러 와서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손님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재가 분명히 뭐 하러 왔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고. 그러면 달란 말도 못하고 계속 서 있다가 슬그머니 돌아가죠.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서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고. 나중에 전태일이 삼동회로 바꾸는 회의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하자”고, 그래서 상당히 공감

을 했던….

이수호 그 이야기는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하시고. 어쨌든 우리 임현재 선생님이 평화시장까지 가게 된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최종인 선생님이 이어서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최종인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열다섯 살에 의류 판매사원을 했잖아요.

이수호 네. 지난번에 살짝 나왔었죠.

최종인 그래서 평화시장에서 뭘 하는 건지 대충 알아요. 의류를 생산하고 밑에서 판매를 하고. 평화시장은 소매를 하는 게 아니라 도매를 합니다. 도매를 하는 형식은, 지방에 중간도매상이 있어요. 우리 가게가 의류판매의 중간도매상이었어. 내가 그 가게에서 점원을 했으니까. 3년 동안 있었어요. 평화시장에서 의류를 만들어 중간도매상으로 공급하면 그 지역의 소매상한테 조달되는 과정인 것을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시장의 의류 만드는 밑집지역이고, 동남아에서 최고 크다고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점원을 하면서 그만두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 마음먹었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죠. 우리가 중간도매인이니까 수급 사원으로 소매하러 목포에서 완도 가는 여객선을 타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옛날 집들의 화장실 구조가 돼지를 화장실 밑에서 키웠어요. 똥돼지를 키워요.

이수호 제주도식이네?

최종인 네. 저는 화장실, 하튼 그 집에서 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웃음)

이수호 (웃음)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최종인 아, 이런 어려운 지역도 있구나. 나는 도시에 사니까 잘 몰랐는데…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서 혼자 선상에 올라 하늘만 쳐다봤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나와서 판매사원,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니 좋은 직장이었죠. 그래도 사람 많은 물에서 놀아야겠다고 배 위에서 결심을 하고 서울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사장한테 “저 서울로 갑니다” 이야기를 했죠. 마침 서울에 친구가 통일상가에 재단사로 있었어요. 민병일이라고 고향 친구예요. 같은 동창인데 나보다 두 살 더 먹었어요. 찾아갔더니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성립사라는 바지집에 취직이 되고 거기서 김영을, 임현재 친구 김영을이를 만나요. 김영을이는 재단사고, 나는 그 밑에서 종사하면서 그다음에 이승철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승철이와 초장부터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러저러한 상황들이 평화시장에 들어오게 한 동기고.

평화시장을 보면, 청계천 5가부터 8가까지 건물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동화시장, 통일상가가 있어요. 나는 그때 통일상가에 매장을 둔 인근 가정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는 다락을 만들지 않고 지하실에서 일을 했으니 저는 다락을 낸 구조가 어떤 모습인지 못 봤고요. 친구들이 일하는 다른 쪽 평화시장에 가보니까 전부 2층에 다락을 내렸어요. 15평이라 하면 10평을 더 늘려서 2층이 다락이에요. 그러니까 미싱사가 일을 하면 겨우 앉아 있을 정도의 환경인 거기 2층에서 재단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걸 처음 봤고요.

이수호 그 이야기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최종인 그런 환경 속으로 나중에 제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는 주로 가정집에 소재한 공장을 전전하고 다닌 데다 남다르게 빨리 재단사가 되어서 남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재단사가 됐고.

이수호 그러니까 지방에서 점원을 하다 보니 평화시장에 대해서 미리 알았고, 그래서 어떤 꿈을 상당히 가지고 서울에서 내가 출세를 한번 해보아겠다고. (웃음)

최종인 출세보다도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재단사는 월급을 많이 받는다니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왔죠. 내가 출세라든지 다른 생각을 했겠어요?

이수호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출세 같은 거창한 생각은 할 형편이 아니었고, 우선 조금 좋다니 한번 가보자 하는.

최종인 그리고 하숙을 하는 거죠. 저는 성립사 공장에 있을 때는 하숙을 해요. 승철이 형수집이었는데 거기다 다락을 냈어요. 1층은 부엌, 그 위에 다락을 내고 네댓 명이 하숙을 하면서 공장에 출퇴근을 했죠. 그 때부터 아! 서울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이수호 그래요. 그러면 우리 김영문 선생님께서는 그쪽으로 연결된 과정부터 해서 당시 평화시장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김영문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잠깐 입학했다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고향에 있으면서 장사도 해보고, 정말 할 것 못 할 것 여러 가지 해봤죠. 아이스끼끼 장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보고요. 집에서 고구마를 찌서 장에 가져다가 팔기도 했고요. 그 경우는 생선가게를 하는 두 살 더 먹은 친구가 “야, 가서 같이 해보자”며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런 일을 아버지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원래 셋째 누님이 매형하고 목포에 사셨는데 어찌해서 서울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영부영 있다고 하니까 “그럼 올라와라” 해서 올라와서 보니 홍은동 근처의 야산에서 셋방을 살고 있었어요. 보면서 참,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누나니까 저는 조금 편했죠.

홍은동에 아주 큰 유리공장이 두 개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기초자공업(경기유리공업으로 변경)이라고 그곳에 취직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공장이 집 밑에 있어서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마 7~8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거의 남자들만 있고 정말 굉장히 무서웠죠. 어린 나이에 선배들이 무서웠고. 사실 선배들이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고.

그렇게 거기서 한 7~8개월 정도 일했어요. 거기에 유리를 용해하는 독이 있어요. 깨지면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공사할 때 한 조가 최고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가위질하는 사람, 깨진 걸 빼는 사람, 날라서 옮기는 사람.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는데 해고가 되더라고요. 그냥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해고되는 이유를 알고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집에 있게 됐는데 어느 날 나이가 동갑인 여자친구가 나보고 “평화시장에 가볼래?”라고 물었어요. 그 친구의 말에 의해 평화시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맨 처음 왔을 때 작업복집이었는데 평화시장 2층이었어요. 정말 지금 이야기한 대로 다락방을 다 내서 2층이 작업 공간으로 쓰였어요. 거기에 재

단판이 있고 미싱도 올라가 있고. 그 작업복집에 특종기계도 있고, 인원이 열서너 명 정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일은 하지만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보다 어린 시다들이 있었고, 위에 누나들이 미싱 하고 보조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형광등 위에 먼지가 자욱이 끼어 있어요. 그걸 보는데 참 그렇더라고.

그때가 66년도였던 것 같아요. 한 1년쯤 되었는데 매형이 인쇄소로 가라고, 그럼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를 못 했으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인쇄소로 갔어요. 4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4개월 있었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수호 평화시장이?

김영문 네. 왜냐하면 평화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는 많지는 않았어도 모두 남자들만 있었고. 여기는 어쨌든 여자친구들, 여자 동생들, 누나들도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평화시장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게 전태일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죠. 제가 한미사에 있었고, 그 친구도 한미사에 있어서 서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진에 있는 친구, 이희도라는 친구하고도 가까이 지냈고요. 그렇게 한 4개월 있다가 신우사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사장 동생이 재단을 하고 있었는데 재단보조를 며칠 하다가 거의 6개월 정도 되니 재단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든지 모두 합하면 보조 경력이 1년 넘잖아요.

이수호 뒤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하시고. 지금 보니까 김영문 선생님 같은 경우 어릴 때 유리공장에 갔다가, 다시 평화시장에 왔다가, 또 공부를 해야겠다는데 인쇄소에 갔다가, 다시 평화시장으로 오는데요. 다른 데도 비슷하지만 당시 평화시장은 그냥 취직하기에는 그렇게 어

렵지 않은 상황이었고.

김영문 네, 그렇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습시다.

이수호 대체로 생각들은 그냥 와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인식이나 상황들이 다른 공장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김영문 저 같은 경우에는 평화시장에서만 있었어요. 평화시장은 2층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지 큰 건물 안에 복도가 있고 복도 양쪽으로는 공장이 쪽 딱딱딱 붙어 있었어요. 저는 가정집 구조에서 일했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일했던 사람들과는 환경이 약간 달랐다고 봐요. 평화시장이 다락방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수호 우리 승철 씨는 어떻습니까? 평화시장에 오게 된 과정이나 인식, 생각, 이런 것들.

이승철 그러니까 64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죠. 지금 보면 아마 창덕궁 비원 앞이었을 거예요. 그 앞 기사식당에서 몇 개월 있었죠. 그렇게 서울에 있다가 추석을 쇠었는데.

이수호 그때 식당에서 뭐 하셨어요?

이승철 차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차 안에 흡이나 먼지 등을 빗자루로 쓸어 놓죠. 그럼 선배들이 물로 닦고 정리하고 그런 거죠.

이수호 서비스로 차 청소해 주는?

이승철 네, 기사들 오면 청소. 그 일을 하다가 자동차 문에 손가락이 다쳐서 엄청 곪아가지고 끔끔 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형님이 용산 정훈학교에서 군대생활을 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니 나더러 내려가라고 해서 병원에는 가지 않고 시골로 내려갔죠.

그리고 66년도에 다시 서울에 왔어요. 지금 동대문 광장시장 원단 파는 2층에 콩비지백반집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배달을 했어. 그때는 광장시장 원단가게에서 나는 냄새가 엄청 지독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 그런 곳에 4그릇씩 들고 배달 갔어요. 사람 많은 데를 엄청 힘들게 다녔지요.

그렇게 일을 하다 6개월쯤 됐나 또 아팠어요. 내가 어리고 조그마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너는 도시 가서 살 체질이 아니다. 여기서 농사일을 배워가지고 노동하고 살아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아주 뻥세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18일 동안 벼를 심으러 다니고.

이수호 모심기만?

이승철 네. 제가 생각할 때 모심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길가, 신작로 옆에 풀이 나온 걸 삽으로 떠요. 그걸 가져다가 털어서 퇴비로 써요. 그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보리도 많이 심고.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린 논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싶었어요. 서울에 가야 되겠는데 형님한테는 부탁을 못 하겠어. 그런데 동창이 하나 있었어. 두 살 더 먹은 친구였는데 인쇄소에 있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서당을 잠깐 다녀서 한문을 좀 많이 알아. 그 친구가 “야. 너 올라와” 해서 간 곳이 퇴계로. 아주 조그마한 인쇄소인데, 활자를 찍고 나면 휘발유에다 그 활자를 칫솔 같은 걸로 닦는 일을 했어요. 그 일

이 끝나고 나면 판을 짜고 등등 여러 가지 것을 했어요.

그때 종인이가 67년도 가을에 왔어요. 종인이는 평화시장에 취직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있었지.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평화시장의 재단사들은 10년 다니면 2만 원을 받는데, 인쇄소를 10년 다닌 사람은 1만 원도 못 받아. 그러면 재단사로 취직해서 기술을 배워야 돈을 많이 벌겠구나 생각에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취직을 시켜준 게 자기 공장. 성립사라고, 거기가 지하라고 해도 반지하예요. <기생충>에 나온 반지하인데 다락을 냈어.

거기에 재단사 김영올이가 있었지. 나보다 한 살이 많았고, 종인이는 나하고 동갑인데 둘이 친구 같아도 서열이 있었죠. 처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니혼바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레빠시라는 용어였어요. 나보고 “이리 와, 이리 와” 해서 가면 “기레빠시가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재단하다 남은 천 조각을 집더니 “이게 기레빠시야. 앞으로 내가 기레빠시 하면 이거 가져와” 그리고 재단사가 “이리 와 봐” 부르면서 기억자로 된 자를 보여주며 “다음에 내가 각자를 가져오라고 하면 이걸 가져와”. 곡선으로 된 자는 나마고자라고도 알려주었어요. 또 일자로 된 것도 있어요. 그거는 마자라고 그래. 그런 용어부터 제가 배웠고요.

얼마 있다가 최종인은 재주가 좋으니까 그만두고 다른 데로, 재단사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 이후로는 사장이랑 둘이서 일했는데 사장이 도박을 좋아해서 망했어. (웃음) 그래서 몇 달 안 다녔을 거예요. 6월쯤 됐을까, 집에서 형수가 봉투를 붙이고 있었어요. 나도 놀고 있으니까 같이 붙였거든. 그 봉투를 이고 염천교 쪽으로 가서 팔았어. 그래서 우리 형수가 나를 아주 착한 시동생으로 생각했어. 다른 사람들은 종일 앉아서 누가 그런 일을 하냐 이거지.

그리고 있다가 통일상가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치 모든 시장이 1층에는 매장이 있고 2층, 3층에는 공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평

화시장이고, 동화시장은 1층에 다른 가게들이 있고, 2층에는 다방도 있고 3층, 4층, 5층은 전부 다 공장이었어요. 통일상가는 단일하지는 않았고, 건물 하나씩 따로 따로 있었어. 5층 건물부터 4층, 3층 건물까지.

그런데 내가 간 데는 4층이었어요. 동신사라고, 실평수가 40평 정도는 됐어. 다락 아래에는 아동복을 제작하는 미싱이 14대가 들어가 있고, 대인복을 제작하는 미싱이 6대 정도 들어가 있었어. 나머지는 다락에 있었거든. 재단판 위에만 뚫려 있고 옆에 사다리(계단)로 올라가면 대인복 미싱사들이 일을 하고 그래. 거기는 한 70명 정도 있었어요.

이수호 당시로는 거기가 굉장히 큰.

이승철 아! 췌죠. 거기에 제가 재단보조로 들어갔는데 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와서 쪽 돌아보고 또 저녁에 와서 한번 휙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한 달이 되면 월급을 사람이 모두 있는 데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서 줘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미싱사들은 객공이었어요. 그들에게 3만 5천 원 정도 주는데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3만 5천 원이면 지점장 월급이야”라고. 그런데 나는 2천8백 원 받고 들어갔거든요. 앞전 성립사에 처음 들어갈 때는 8백 원을 받았는데 몇 달 일하고 나자 어느 정도 기술이 생겨서 2천8백 원을 요구해서 받기도 했죠.

공장장이 사장 처남이에요. 꼭 남진처럼 생겼어. 노래도 잘하고 아주 멋쟁이였어요. 처남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장이 처남을 부르더라고요. 처남을 불러서 “재, 재” 하는데 내 이름을 기억 못 하니까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가 한 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참 애가 부지런하고 똑똑하다”고, 처남보고 “네가 기술을 좀 가르쳐서 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딱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공장장이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두 달쯤 되니까 월급을 2

천8백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올려주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조그마한 공장들이 다 손칼로 재단을 했는데, 거기에는 재단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재단기 쓰는 법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주머니 속 자르는 쉬운 것부터 하다가 재단기에서 제일 어려운 나일론 옷을 자르는 것까지요. 애들 누비할 때 한 3~4백장 하잖아요. 그걸 너무 빨리 자르면 순서대로 놔두는데도 다 흐트러져. 그런데 이걸 너무 늦게 하고 떼려고 하면 녹아 붙어서 뗄 수가 없고 더 심하면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원단 보면 미미라고 있어요. 두툼해서 나라시 하면 올라가 있고 바닥 쪽은 내려가 있어요. 미미 쪽은 재단기로 힘을 가해야 잘리는데 잘못하면 폭 들어가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배웠지요.

이수호 그게 기술이네.

이승철 재단사가 나까지 다섯이였어. 내가 제일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공장장이 계속 키워주면서 친해졌어. 밑에서 나라시 해놓으면 내가 자르고, 위에서도 나라시 해놓으면 내가 가서 자르고 왔다 갔다 했죠. 나는 주로 계속 자르는 작업만 했어요. 내가 일을 엄청 열심히 했나 봐.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다들이 불쌍했다, 미싱사들이 불쌍했다, 그런 감정은 내가 못 느꼈지. 어쨌든지 기술을 배워 돈을 많이 벌어서 시골에 보내야 된다는 그거밖에 머릿속에 없었죠.

나중에 몇 달 지나니까 공장장이 일감 나눠 주는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면 아동복 같은 경우 한 장 만드는 데 공임은 같아요. 그런데 3~4세의 옷과 14~15세 옷은 꿰매는 데 차이가 엄청 커요. 조그마한 옷 꿰매는 일이라 큰 옷 꿰매는 일은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그걸 잘 나누어 주어야 미싱사들이 반란을 안 일으켜. 큰 것만 주면 하루에 몇 장씩 차이가 나는데, 자꾸 큰 것만 가져오면 우리한테는 분풀이 못 하고 시다한테 “너,

왜 이딴 거 가져왔어”라고 막 집어던져.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 나눠 줘야 해. 그거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 파워가 조금 있었다고나 할까. 하여튼 그런 중요한 일도 했고요.

우리 공장은 재단사라기보다 고안사였어요. 재단사는 주로 재단만 놓고 하는 사람인데 고안사는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야. 머릿속으로.

이수호 요즘 말로 하면 디자이너, 옛날에 고안사라고 했어요. 고안.

이승철 우리 공장 고안사는 라사라 복장 학원에서 일을 정식으로 배워서 고안이나 재단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야. 공장장이 “승철이 재단을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부탁하니까 고안사 그 사람이 1/4 축소자로 자기가 배우며 적어 놓았던 공책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려가며 나를 개인과 외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만 배워서 안 되니까 직접 해보라고 했지. 그럼 다음 날 공장장이 아무거나 쓰라고 했어. 기레빠시 큰 거 남은 것들 꺼내서 바지를 재단하면 미싱사들보고 꿰매라고 하고. 그리고 잘됐나 안됐나도 확인하고. 남방도 해보고, 신사복 상의까지도 재단해 봤어요. 재단이라는 게 기본 방식이 있어요. 구구단 하듯이 기본 방식에 응용을 하는 거지. 그 공식만 알면 거기에 다 떠요, 그게.

이수호 하여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끝이 없네. (웃음) 지금 보니까 대체로 평화시장이라고 이야기되는 청계천 중심의 상가가 지금 평화시장으로 돼 있지만 동화, 동화시장.

김영문 통일상가, 동화시장.

이수호 이렇게 삼동이 중심 상가인 거고. 그 세 곳도 각각 여러 가지 조건이나 모양은 약간 다른 형태로 있었고.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락을 낸다 그러는데 다락방에서.

김영문 그건 기본적이었구요.

이수호 거기서 대규모로 일하는 형태가 평화시장이고, 동화시장 이쪽은 가정집하고 겹해서 작업을 하기도.

김영문 아뇨. 동화시장도 컸기 때문에 다락을 냈어요. 통일상가는 작아서 그렇게 안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수호 그리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대체로 66년부터 68년 그 사이에 전부 평화시장 쪽으로 왔는데.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다가 관두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중학교에 해당하는 그 시기는 대체로 이런저런 힘든 일들 또는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했거나. 고등학교 들어갈 그 무렵에 평화시장이나 봉제산업 쪽으로 온, 그런 상황인데. 각자 다르지만 여러 가지 그 시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보탬 수 있으니 생각나시면 하면 됩니다.

2. 봉제산업의 구조

이수호 다음으로 두 번째는 평화시장 내부의 개별 작업장이 운영 되는 구조에 대해서 평전이 말하고 있는데. 대체로 작업장당 10대의 재봉틀을 구비하고, 10명의 미싱사와 10명의 시다, 이는 대체로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사 1명, 재단보조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작업 공정은 재단사가 원단을 재단하면 시다가 이를 미싱사에게 건네주고, 미싱사가 작업이 끝나면 마도메라고 그래서 완성공. 또는 시아게, 다림질을 거쳐 1층 매장에서 판매되는 구조를 주로 갖추고 있었다고 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취업하신 작업장의 명칭과 규모 등 말씀을 살짝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맡은 첫 직역, 구체적인 역할 등 보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주로 생산하던 품목과 제조 공정별로 작업 과정, 공장 내 분위기에 대한 것도. 우선 처음 취업을 했을 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살짝 겹친다 하더라도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승진 과정은 도제식으로, 취업 시에 반드시 시다로 시작해서 보조를 거쳐 승격하는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아까 승철 씨처럼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니 공장장 눈에 들어서 빨리빨리 승진을 시켜준 형태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각 공정에서 상위로 승격하는 경우에 만족해야 될 조건이나 기한 등 어떤 제한들이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역으로 빨리 성공을 했다거나 하는 사례들. 그리고 시다와 보조 이외에 재단, 미싱, 마도메, 시아게 등 여러 가지 역할과 직역 사이의 위계나 계급 관계에서 보이는, 예로 윗사람은 무

조건 시키고 아랫사람은 무조건 꼼짝없이 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도 있었는지.

최종인 그 관계는 내가 가정집에서 일했으니.

이수호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종인 선생님부터.

최종인 재단사가 김영율이라고 친구예요. 내가 그 사람 아래 보조로 들어가요. 보조는 어떤 일을 하나면, 재단사의 뒷일을 돌봐주는 일. 원단이 들어오면 원단을 날라야 하고 재단을 하기 위해서 펴놓으면 나라시를 같이 해야 되고. 옛날에는 재단하면 한꺼번에 많이 놓고 자릅니다. 작업복이지만 모든 재단이 다 그래요. 몇백 부를 잘라야 되니까 조금씩 놓고 자를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자르는 방법은 칼로 잘라야 됐어요. 칼이라는 건 재단칼. 옛날에는 재단기라는 게 없었어요.

이수호 특수공장에는.

최종인 거기는 특수한 경우고. 웬만한 공장에는 재단 기계가 없었어요. 재단칼로 재단을 해야 하는데 납작하고 손바닥처럼 생긴 칼은 직선으로 자르고, 작고 뾰족한 칼로는 곡선을 힘주어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방법 그게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르다 보면 잘못 자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친구니까 뭐라고 야단은 앓고 자기가 다시 잘라요. 그걸 잘해야 재단보조가 돼요.

이수호 시다에서 보조로 가는 거죠.

최종인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미싱사들이 거의 객공이에요. 객공이라는 제도는, 재단사가 재단해 주면, 아동복도 작은 것은 빨리 많이 만들 수 있으니 미싱사는 숫자대로 계산을 해서 임가공을 정하니까, 하루 임가공 값은 하루에 열 장 만들었다면 그 기준에서 사장이 대충 재단사하고 의논해서 미싱사 월급은 얼마다, 이렇게 정하거든요. 시다들은 미싱사가 월급을 줍니다.

이수호 미싱사가 시다에게 주고.

최종인 시다들, 사장이 고용했지만 미싱사가 월급을 줘요.

이수호 미싱사는 또 재단사가 주고?

최종인 아니, 재단사하고 재단보조하고 기타 시아게 등 한 네댓 사람 정도 있어요. 재단사 밑으로 세 사람 정도 딸려 있어요. 그곳은 네 사람 정도 딸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장이 월급 주고. 미싱사와 시다, 견습공이라고 하는데 견습공들은 미싱사가 월급을 준단 말예요.

이런 방식이 옛날 일본식 제도래요. 일 많이 시키기 위해 객공이라는 편법을 쓰는 거죠. 나이 많이 먹은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한테 일감을 잘못 나눠 주면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앞에서 열세 살짜리나 열다섯 살짜리 것을 주면 크기는 다르지만 일감 숫자는 똑같으니까, 재단보조나 재단사가 그걸 잘해서 나눠야 하는 거죠. 작업복 공장을 비롯해 어느 공장이든지 미싱사나 시다는 월급제라는 게 없었어요. 월급을 주는 방식이 전부 다 그런 객공 제도예요.

보면 손이 빠르면서 곱게 박는, 미싱질을 잘하는 누나들이 있어요. 지금 그 누나, 영자라는 누나가 생각나는데 한 네댓 살 많이 먹었어요. 그 누나

를 보면 일을 너무 잘해, 그 공장에서 최고야. 그리고 꾀발이 있어. 사장한테 항의도 할 줄 알고, 조건을 제시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누나 밑의 모든 사람들이 누나를 따랐죠. 그 누나가 워낙 기술자인 데다 누나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그 공장의 분위기이고 법이었어. 그 누나가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취급을 안 해요. 잘하는 사람만 인정을 해요. 그 누나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수호 사랑을 많이 받았죠. (웃음)

최종인 사랑은 아닌데,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때는 나 일 잘한다고, 어디 가든지 간에.

이수호 이쁘게 생겼다고 그런 거 아녜요? (웃음)

이승철 잘생겨서 그랬겠지. (웃음)

최종인 아니, 어디 가든지 간에 나, 일 열심히 하거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누나들한테 대우를 잘 받았어요. 다른 공장에서라도 그곳 누나들이 나한테 대우를 잘해주었어. 그렇게 대우받고 다녔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품목이 엉뚱하게 아동복으로 달라졌지. 겨울에 스핀지 넣어서 만든 나일론. 그때 68년도는 나일론 옷이 유행을 했어요. 나일론으로 만든 아동복은 모자다리.

이승철 그걸 문어다리라고 그랬고.

최종인 모자다리라고, 문어다리, 문어마냥 생겼다고. 그건 만들기

만 하면 팔려요. 공장에서 만들기만 하면 팔리기 때문에 겨울에는 밤도 새워야 했고, 일주일엔 두 번은 밤을 새웠을 거예요. 대목일 때도 대목이 아닐 때도 워낙 물건이 팔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 공장에서 일할 때는 공장에서 생활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공장의 스펀지 속에서 잠을 잤죠, 숨 속에. 그러다가 감기에 걸려서는, 그 축농증을 아직도 안고 다니는 중.

이수호 그때 걸린 감기가 지금까지? (웃음)

최종인 지금도 있다시피 해요. 기관지가 그렇게 깨끗하게 좋진 않아요. 그렇게 생활을 하니 미싱 잘하는 누나들이 내가 노상 아프니까 약을 사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와이프가 됐어요. (웃음)

김영문 거의 이야기들이 비슷한데요. 아까 손칼 이야기도 했지만 처음에 들어가면 진짜 그것부터 배워야 해요. 칼을 솟돌에다 가는 것.

이게 옷 자체가 절개가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바지 같은 경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개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이 많아지거든. 객공들이기 때문에 옷을 많이 만드는 대로 돈을 받잖아요. 재단보조하고 재단사하고 일감을 정말 잘 선별해서 나눠 줘야지, 선별을 잘 안 해주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누나들이 진짜 그래요.

나도 그 뒤에 아동복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겨울에는 우라 있는 것을, 우라는 안감을 말하는데 밀가루 자루를 털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우라를.

이수호 속을 넣었다는 것?

김영문 네. 그걸 털면 먼지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는 하도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대충 그러는 모양이다 하고 일만 했지요. 그런데 후에 이런 작업장의 환경 실태가 너무 열악하고 안 좋다, 그래서 태일이야 작업 공간 개선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수호 그중에서도 이제 시다.

김영문 그렇죠. 시다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 어린 애들이니까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재단사, 재단보조가 주는 대로, 오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특히 시다들은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적어도 1년에서 빨리 배우면 보조로 가고, 보조로 가서 또 1년 있으면 미싱사로 가고, 빨리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가는 과정이거든요. 아주 순서예요.

이수호 이어서 좀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이승철 제가 70명 되는 공장에 재단보조로 들어가서 느꼈던 건데요. 당시 시다들이 들어와서 ‘내가 월급이 적다 많다’ 불평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아마 다 미싱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환경을 조금 이야기하면요. 천장 높이가 2.8m 정도인데, 다락방을 만들면 1.4m 정도로 의자를 놓고 앉으면 머리가 닿을 듯 말 듯 해요. 지금 여기 전태일기념관에 미싱을 가져다 났지만, 그때 미싱은 백삼 미싱이라고 까만 게 있었어요. 머리가 까맣게 생겼어요. 미싱을 돌리려면, 손바닥

만 한 판자 두 개에 전깃줄을 연결해서 발로 밟았다 뗐다 하면 전기가 연결되면서 모터가 돌아요. 모터가 돌면 미싱이 돌아가면서 옷을 만드는 구조였어요. 아래 발판 부분은 천으로 가려져 있고, 전깃줄이 미싱 머리 위로 쪽 연결되어 걸려 있었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녁이 되면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전깃줄 위에 소복이 쌓인 눈처럼 작업장 안에 하루치 먼지가 다 쌓여요. 그리고 공장에 불날까 봐 난방을 안 해. 창문이 있는 것도 다 봉하고 그러니 공기가 엄청 탁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환경에서 고약한 미싱사들은, 시다들이 스펀지하고 원단하고 똑같이 잘 맞춰 놓아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좋게 말로 하지 않고 그걸 손으로 팍 던져버리는 거야. 시다들이 울면서 다시 잡아 맞추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구요. 출근을 8시까지 했을 거예요. 눈뜨면 밥 먹고 나오고, 저녁에는 차가 끊어질 때까지 있었어.

이수호 막차까지?

이승철 네. 답십리나 그 외에 여러 군데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공장장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둘이서 먹고 자고 하게 됐어요. 겨울에는 대인복은 잠바를 만드니까 괜찮은데 봄가을엔 주로 바지를 해요. 바지는 시아게를 해야 되는데 시아게사가 한 명 있는데도 앞 과정에서 늦게 떨어지니까 작업을 많이 못 하고 가. 그럼 10시에 끝나면 밥 먹고 공장장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걸 새벽 2~3시까지 계속한 적이 아주 많았어요.

이수호 공장장은.

이승철 처남이고.

이수호 처남인데 사장은 아니잖아요?

이승철 네, 사장은 아니죠. 그런데 그날 마무리해야 될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데 내가 잘하니까 작업을 같이 하게 돼서 뒤로 나한테 용돈을 한 달에 1천 원도 주고 2천 원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일하면서 나중에 그만둘 때쯤엔 임금이 8천 원까지 올랐더랬어요.

그런데 간혹 내가 자고 있을 때 보면 시다 애들이 차를 놓쳐서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 할 수 없이 여기서 잠을 자기도 했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시다 애들이 깡패들 때문에 쫓겨왔을 때 내가 그때 정신없이 칼을 휘둘렀지. 스펀지를 높이 세워서 자르는 긴 칼이 있어요. 자루도 길고. 그걸 들고 가서 설쳤다가 깡패들이 맨날 쫓아와서 공장장이랑 둘이 공장에서 못 잡지. 열흘 정도 누나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재단을 배웠었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사장이 운수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보험이 안 되는 시기였으니까 사람 치여서 죽이면 택시회사들은 다 망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았고, 사장도 그런 경우였죠.

그렇게 부도가 나서 다시 취직을 했는데 재단사로 일했어요. 최종인이가 근무하는 곳의 사장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선생이야. 남편은 당시에 듣기로 미사령관 운전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 오빠가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도 옷을 만들겠다고 해서 가게를 얻은 거야. 그때가 68년도 가을인가 돼요. 추석 쇠고 난 뒤일 거야.

그래서 종인이가 나한테 “너 재단할 수 있냐” 물어서 “응, 할 수 있어”라고 하며 갔는데 우리 공장에서 작업하던 걸 하더라구. 아까 이야기처럼 그때는 꽃무늬가 이쁜 아니롱 원단에 앞에는 스펀지를 넣어서 다이아몬드식으로 누벼 여덟 가지 사이즈로 만드는 작업을 고안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공장은 있는데 재단판이 없어. 신당동에 사장 집이 있었는데 꽤 컸어. 거

실에서 보조도 없이 나라시를 해. 그때 말로 거기엔 식모가 있었죠. 애들 둘을 키우면서 도움을 주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덩치가 좋은 식모랑 같이 나라시를 하기도 했어. 그럴 땐 점심에 아주 제일 맛있는 걸 해줘서 점심밥은 잘 먹고. (웃음)

재단기가 없으니까 손칼로 재단해서 그것을 자루에 담아 등에 지고 공장까지 와서 일을 시키고 했지요. 내 월급을 결정하면서 사장이 2만 5천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미싱사들이 사장한테 “저 재단사, 그렇게 주면 안 된다. 3만 원은 줘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내가 3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장사를 그런대로 했어. 봄이 되어서는 조그만 여자애들 블라우스하고 남자애들 남방 같은 아동복을 했어요. 내가 그 일을 배웠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쑥쑥 알아서 다 했어. 그런데 선생 하던 분이 점원을 하다 보니 장사 안될 때는 울화통이 터지는 거야. 여름휴가 무렵에 그분이 “그만둬야 되겠다”고 해서 장사를 접었어. 나는 최종인이가 있던 공장에서 사장이 월급을 3만 5천 원 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일할 때 전태일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수호 자! 우리 임현재 선생님.

임현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권력 구조가 떠오르죠. 재단사는 시다와 미싱사들에게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단보조한테도 권력이 있고. 재단보조는 시다들한테 또 권력이 있고. 미싱사는 자기가 많이 생산한 만큼 월급을 받아가니 많이 할수록 수익이 더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왕 단가가 똑같으면 일이 좀 쉬운 거, 한 공정이라도 빠지는 거, 사이즈가 좀 작은 걸 하려고 하죠. 여기서 조금만 꺾매면 될 걸 더 많이 꺾매야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다짜라고 하는데, 한 묶음에 10장을 가져오는 것과 15장을 받아오는 것은 한 공정으로 작업하면 15장이라고 해서 개수만큼 3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여서 오히려 시간이 줄어드단 말예요. 그러니까 15장을 받아오는 것이 10장을 가져온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이런 작용들이 다 권력시스템으로 구조화돼 있는 거죠.

사장은 총체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고시킬 수도 있고. 제가 평화시장 삼화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가 8월 15일경 여름이었는데, 그때 정말 나일론이 아주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입사한 곳도 나일론으로 반팔 남방셔츠를 만드는 공장이더라고요. 얼마쯤 사장이 원단을 메고 와서 나에게 그것 좀 같이 풀자고, 그래서 그 일을 거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나중에 친해졌을 때 미싱사들이 나보고 “너 재단보조로 온 게 아니고 원단가게에서 온 줄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아까 다른 공장들은 재단사가 있고 재단보조가 있고 시다 등 그 외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딱 미싱사 6명, 시다 6명 그리고 나, 사장이 전부였어요. 사장은 가게도 보다가 재단도 하다가, 그러다 혼자서 일이 너무 바빠니까 덩치 좀 있는 놈 하나 구한 게 저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단이 들어오면 4층까지 메고 올라가는 일도 하고, 제품이 완성이 되면 1층에 있는 점포까지 물건을 날라다 주는 일도 하고. 온갖 갖은 일을 다하는 거죠.

이수호 힘 쓰는 일은 다해야 되는 거죠.

임현재 네.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나를 빨리 가르쳐서 자기가 하는 많은 일들을 나한테 넘겨주는 거죠. 승철이는 다른 사람을 제쳐야 됐지만, 나는 그냥 사장한테 직접 배우는 입장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더 빨리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에는 생산하는 제품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름

에는 남방셔츠니까 우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에리에 들어가는 싱하고, 옷감, 걸감 이것만 필요했던 제품이, 가을이 되어 점퍼를 만들게 되니까 작업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우라 있지, 속에 솜 들어가지, 시보리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 데다 단수도 많아야 되지. 그러니까 부속도 엄청 많은 거예요. 모자에 딸린 부속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다를 넣어서 원단이 최소 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사장이 서너 번 가르쳐주더니 위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이 “몇 단 가다를 넣어라” 하면 그걸 그려요. 그리고 “사장님 다 됐습니다” 검사 받고 나면 둘이서 나라시를 하고, 이럴 정도까지 됐었는데.

그해 겨울이 정말 엄청 바빴어요. 바쁘니까 거의 매일 집에 못 들어가고, 공장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일하고. 사장은 자기네 집으로 퇴근을 했다가 아침 일찍 와요. 그리고는 어제 생산한 상품 중에서 “어떤 어떤 것들이 지금 주문 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지고 내려와라”라고 시키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다락 위에 재단판이 있었는데 그 재단판에서 사장 처벌하고 미싱 보조 한 명하고 자취를 했어요. 개네들은 밑에 미싱 하러 내려가고, 내가 새벽까지 일하다가 추워서 그 이불 속에 잠깐 들어가 누워 있는 사이에 나한테 심부름 시키려고 사장이 올라왔어. “임 군” “네” 일어나서 기어 나오는데 사장이 다락으로 고개를 쭉 빼서 보더니, 내가 거기서 나오니까 얼굴색이 짙 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나를 불러서 갔더니 그때까지 일한 값을 딱 계산해 주면서 “우리는 너 정도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딱 데 일자리 구해 봐라”, 그게 해고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정말 황당했죠. 어제까지 신임 받고 일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는 거잖아요.

이수호 이유도 모르고?

임현재 그날이 더군다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캐럴 송이 울려 나오는데 나는 해고돼서 쫓겨났죠. 나중에 공장 누나들과 미싱 사들을 만났는데 누나가 “야, 너 왜 쫓겨났는지 알아?” “모르지, 뭐” “야, 정덕이가 사장 애인이잖아. 니가 그 이불 밑에서 잤다매.”

모두 (웃음)

이수호 오해를 했구나? (웃음)

임현재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쫓겨나게 됐지. 그런 경우들이 평화시장의 불합리한 점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사장이 와이프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었다는 에피소드까지 듣게 되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쫓겨난 경험도 있고.

그런데 평화시장이 취직하기가 빠르고 쉬운데, 어찌해서 인연이 안 닿으면 1년 정도도 취직을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리고 나중에 김영율이 나를 불렀고, 최종인이 김영율한테 가서 일을 했고, 이승철도 거기 가서 일을 했지. 김영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맺어진 인연들이예요. 그다음에 신기호라는 분이 있고요.

이승철 선배.

임현재 이승철의 선배고, 전태일의 선배고, 내 상사였고. 이런 인연으로 맺어진 인연이 지금까지.

최종인 그 멤버의 인연들이예요. 친목회를 수년 동안 했어요. 전 태일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친목회 멤버들이 한 여덟 명? 그런 인연으로 맺은, 하여튼 노조 활동으로 맺은 여덟 명이 지금까지도 친목회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친목회는, 우리가 태일이 가족을 어떻게 도울 거냐, 재단을 건립하는데 뒤에서 어떻게 간섭을 할 것이냐, 전태일재단에서 필요요구를 하느냐, 추도식에 필요한 예산이 나오면 그걸 해결하는 역할까지 우리 친목회에서 다 했거든요. 그걸 십수 년 했어요. 15년에서 20년 동안.

공장이 20명에서 30명쯤 되면 조금 규모가 있는 공장이고, 6~70명은 굉장히 큰 규모죠. 6~70명은 공장장이 있고, 3~40명도 공장장이 있고. 공장장은 대개 사장의 친인척들이예요. 소규모도 그런 데가 있지만, 조그만 소규모는 재단사가 재단사 겸해서 공장장 역할을 해요. 친인척은 누구나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해요. 사장 아들도 있고 처남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감시 감독, 공장장 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장 겸해서 재단사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근로자 입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인 미싱사들, 시다들 입장에 약간 서 있어요. 완전히 사장 입장은 아니고, 반 사장 입장에서 이야기 들으면서도 일하는 사람과 같은 동료의식으로 공장장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재단사들도 항상 불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수호 네. 지금까지 그 당시의 공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모도 다르고, 각자 역할들에도 차이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다양하고 좋은 얘기였던 것 같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왔다는 것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죠. 최종인 선생님께서 그 인연으로 만났던 부인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다음에는 각자 그런 과정에서 (웃음)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

길. (웃음)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중간 휴식)

3. 봉제산업의 임금체계

이수호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꼭지인데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놀랐던 당시 봉제노동자들의 소득, 임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1964년 전태일이 기술을 배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처음 시다를 시작했을 때 그때 급여가 1천5백 원이라고 평전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하루 14시간 가까이 노동을 한 대가입니다. 당시 하루 하숙비가 120원임을 감안하면 온종일 일을 해도 기본적인 숙식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물론 시다에서 보조, 또는 미싱사나 재단사로 승격되면 급여가 상승하지만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평화시장에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서 설을 지낸 후 대보름까지, 그리고 7월이나 9월 사이의 비수기에는 영업장이 폐쇄되는 경우가 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반실업상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듣고 싶은 내용은 그 당시의 숙박, 의류, 옷값이죠. 식대 등 당시의 생활 물가 수준과 급여가 부족한 견습공 시절에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또는 다른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실 때 참고하실 내용은 당시 시다들의 식생활이나, 시다 급여로 가능한 문화생활들이 있었는지. 뒤에 실태조사 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들. 또는 비수기에 일을 구하는 평화시장 앞 길거리, 분신한 자리이기도 한데, 그쪽에 ‘인간시장’이라고 해서 늘 일



평화시장 시다로 취직한 무렵 시다, 미싱보조들과 함께(왼쪽 세 번째 전태일),
1966년경, 전태일재단.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찾아왔던 곳인데 당시 풍경은 어땠는지, 일거리에 대한 다툼들 즉 불법적인 일자리 소개라든지.

최근에 류석춘 교수가 전태일 시대에는 임금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른바 ‘착취는 없었다, 급료는 제대로 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이런 주제들을 녹여서 당시 본인 사업장과 본인의 체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우리 이승철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승철 평전을 보면 64년도에 1천5백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글 쓰는 분이 잘못 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68년도에 성림사에 들어갔을 때 8백 원이었거든요. 내가 인쇄소에 있을 때는 1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을 배워서 월급 받는 게 1만 원과 2만 원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거기로 갔던 건데.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8백 원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때 내 생각에는 시다들이 5백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보조라고 조금 더 받았고. 그러다 68년 2월에 동신사라고 큰 곳으로 들어갔을 때 가을 무렵이었는데 시다들이 보통 1천 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2천8백 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보며 느꼈던 것은, 그때 물론 임현재 씨나 영문이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잔함이나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저 모두가 다 기술을 배워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나도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일을 엄청 했어요. 겨울에 영하 15도 내려갈 때도 아이롱질하면 더우니까 반팔을 입고도 아이롱질하다가 밖에 나가서 식히고. 그러다 감기 들어서 기침을 한 달 동안 했어요. 보름 정도 약을 먹었는데 안 낫고, 그때는 병원을 안 가니까 약국에서 주사를 한 보름 맞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내 만성 직업병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날씨가 차거나 에어컨 틀면 아직도 기침을 해요. 친구들은 내가 기침 많이 하는 거 알죠. (웃음) 그때

생겼다는 것도 알구요.

그 당시에 고안사는 계속 디자인 가다만 뜨고 공장장 겸 재단사는 가다를 떠주면 원단을 넣는데 그 사람이 잘 넣어. 그 사람이 그거하며 나らし하고, 난 자르기만 하고 그랬지.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재단사들이 대장인데 다른 곳은 미싱사들이 월급을 상당히 받아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우리 공장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감을 나눠 주는데 누가 내게 선물을 사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다만 내가 재단 배우느라고 재단해 준 거를 점심시간에 자기가 밥 후딱 먹고라도 안 쉬고 껌매서 만들어줬던 그런 정도. 그것도 사람들에게 골고루 시켰죠. 한 사람만 시키면 욕먹죠. 당시에 시다들도 그렇게 일을 많이 했던 것은 자기가 미싱사 되겠다는 오직 그런 일념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네요. (웃음)

이수호 (웃음) 큰 공장이고 하니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우리 임현재 선생님.

임현재 우리 그때 전임자 수당이 얼마였나?

이승철 1만 5천 원

임현재 1만 5천 원, 그때는 많이 올랐네. 70년이니까. 나도 맨 처음에는 2천1백 원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나중에는 하는 역할이 달라지니까 몇 달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올라서 만 몇천 원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막노동판에서 막노동을 한 달 30일 꼬박 했을 때 정도의 월급은 됐던 것 같고. 막노동판에 가면 일 못 하는 날이 많아서 그거보다 훨씬 적은

데 여기는 비가 와도, 일요일날 쉬어도 그 정도 월급은 주니까 그게 처음엔 참 좋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수치를 외우는데 둔감해서 (웃음)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이수호 그런데 시다일 할 때 월급은 어떻게? 생활비나 용돈도 필요했을 텐데, 이와 연관된 기억은 없는지.

임현재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따로 뭘 사 먹거나 그러진 않았고, 차비는 매일 타서 다녔죠. 나머지는.

이수호 부모님 갖다드리고.

임현재 갖다드리면 그건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돈이었기 때문에 생활비가 모자라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 집에서도 오히려 막노동판에 가서 일해 봐야 어떨 때는 열흘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공치거나 했는데, 한 달분씩 가져다주니까 오히려 좋아했어요.

이수호 이른바 막노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임현재 처음에는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몇 달 일하면서 어느 정도 습득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더 올려 받았죠.

최종인 그러니까 다른 데와 직업상 구조가 약간 다른 것은요. 여기서 바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몇 개월 경험으로 인력시장에 나가든지 친구 소개로 나가든지 해요. 3개월 경험으로 경력이 '1년이다, 2

년이다’ 하면 (웃음) 월급이 팍팍 올라가요.

이수호 옮기면서?

최종인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승철이 8백 원 받았는데, 저는 숫자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얼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월급 받아서 하숙집 몇 푼 떼어주고, 교통비 하고, 남은 돈으로 겨우 먹고. 그렇게 아주 빠듯한 생활을 한 1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기면서 생각이 확 달라진 거죠. 다른 데로 옮기면서 경험이 많은 걸로…. 내가 열일곱 살에 여기 와서 열여덟 살 때 다른 곳으로 옮겨요.

임현재 그래서 양고라 티셔츠를. (웃음)

최종인 시장에 기술자는 자기 하는 대로 먹기 때문에 직장 옮길 때 ‘내가 재단보조도 경험 있는 사람이다’ 하면 월급이 배로 뛰기도 해요. 시다들의 생활은 겨우 밥 먹고 차비 정도밖에 생활이 안 돼요. 그때 월급으로는.

임현재 그러니까 도시락 싸서 다녀야 되고.

최종인 왔다 갔다 교통비 정도밖에 안 돼. 거기서 오로지 14시간 일을 해도 그 정도지. 과외로 더 벌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미싱사가 수입을 많이 올리면 보너스로 ‘뭘 하나 사라’는 식으로 몇 푼 던져주는 용돈 정도지. 시다들은 용돈, 문화생활, 극장에 가는 이런 생활이 있을 수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저희 재단보조도 마찬가지죠. 극장 가는 것조차도.

저 같은 경우는 한집에 오래 있진 않았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월

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마지막 재단사 역할을 하면서 2만 원인가 3만 원 받았으니까요. 숫자 개념은 없었어요. 제가 다니던 마지막 공장은 1층이 점포, 2층엔 다락이었지. 점포 위에다 다락을 내고 그 위가 공장이야. 거기엔 미싱 5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7평 정도 될까, 7평이나 8평 정도.

이승철 신광사 말하는 거야? 7평 안 돼.

임현재 7평 안 되지.

최종인 아니, 평화시장이 아니라 내가 통일상가에 있었을 때 말 이야.

이승철 그러니까 신광사 아냐?

최종인 그러니까. 7평이나 5평 정도 되는데 미싱 4대에서 5대가 들어가. 거기에서 재단사로 일했지. 업종의 종류는 주름치마를 만드는 공장. 대충 나라시 하고 잘라서 주름치마 던져주면 재단일이요. 그 재단사 역할로 들어갔으니까 월급을 많이 받죠. 시간 나면 1층 가게 내려가서 점원 일도 해요. 옛날에 점원으로 판매도 해봤기 때문에 판매사원으로 일도 했어요.

재단사가 되면 문화생활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재단보조나 미싱사 역시 집에다 월급 갖다주고 동생들 학비라든지 부모님 생활이라든지 뒤통다꺼리를 했죠. 미싱사들이 수입이 좀 많아서 부모들 뒤통다꺼리한 거죠. 일이 많을 때는 꽤 많아서 재단사와 비슷하게 벌어요. 미싱사들이 부모님들한테 그대로 가져다주면 동생들 중학교나 대학교까지 다 보냈습니다. 사실 그 미싱사들이 자기 동생들 다 키운

거예요. 미싱사들은 그랬고, 시다들은 먹고사는 정도로 만족했죠. 점심도 못 싸울 정도로 겨우 먹고사는, 그런 환경이었죠.

김영문 제 생각에 월급을 주는 것도 옷의 품목마다 조금씩은 다 달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마이를 만든다고 하면, 상의 쪽이 그래도 더 고급 쪽이에요. 바지 쪽은 더 쉬웠던 거고. 나는 거의 바지 쪽으로 일을 했지만. 당시 미싱사들이 객공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다들 월급을 줬기 때문에 시다들 월급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오래 일하면 조금 더 주기도 했고. 전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일이 없을 때, 여름 같은 경우 6월 후반에서 7월, 9월까지 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장충단 공원이나 다른 곳에 놀러도 많이 다녔죠. 그렇듯 당시에 공장마다 월급이 조금씩 다 달랐다는….

이승철 응. 달라.

김영문 저도 얼마 받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애. (웃음) 하여튼 달랐어요. 고급 옷을 만드는 쪽은 돈을 많이 벌었고, 간단한 작업을 하는 쪽은 돈을 못 벌었고. 이런 차이라고 봐야겠 죠.

그때 당시 사실은 사장들이 옷에 대한 단가를 결정해요. ‘이건 돈을 얼마 줘야 한다’고 사장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객공들은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미싱사들. 미싱사들은 자기 보조 월급 줘야 되고, 또 시다 월 급도 줘야 했기 때문에 불평이 많았었죠. 여하튼 월급은 각 공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수호 그러면서 아까 종인 씨 같은 경우 다른 데로 옮기면서 경 력도 좀 살짝 부풀리기도 해서 봉급이 많이 올라가고.

최종인 네. 급상승했죠.

이수호 그 당시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기 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안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인 옮길 때는, 평화시장 양쪽에 광장 있잖아요. 조그만 광장. 옛날 국민은행 앞.

이승철 인간시장.

최종인 거기가 인간시장이예요. 조그만 광장. 인간시장에는 1시 부터 2시 사이 점심시간에 모든 실업자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경하거 나 서로 알선하러 나옵니다. 공장장도 오고 사용주도 오고 재단사도 와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곳인데, 안면 있는 사람에게 는 ‘어디서 누가 사람 구한다’고 알선하면 그리 따라가요.

그래서 평화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았다, 일이 없을 때는 다 같이 노니까. 일자리가 없어 해고를 당하는 경우 도 있지만요. 자기가 똑바로 하면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저기도 갈 수도 있 고 얼마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들어가서 일할 때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죠. 죽을 등 살 등 하면 인정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용 주와 안면 있는 사람이 채용한 사람을 보고 사용주에게 “저놈 아주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 채용됐던 사람은 금방 해고돼요. 대충 그런 상황이에요.

김영문 종인이는 머리가 좋았던 거 같아요. 사실 나는 조금 착해서 그런지 공장 옮기는 것을 별로 못했어요. 한 공장에서 오래 있었지. (웃음) 내가 맘먹고 옮길라고 하면 하지, 그래서 옮겼지 않나.

임현재 잘생긴 죄수는 형량이 줄어든다고, 애도 잘생겨서. (웃음)

이수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 (웃음)

김영문 (웃음) 모르겠어. 나는 진짜 한군데서 오래도록 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옮겨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 그래서 전태일이 나를 자주 찾아왔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였지 않을까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수호 영문 씨는 봉급 받아서 주로 뭐에 썼어요.

김영문 저는 처음 68년도, 69년 무렵에는 누나 집에서 다녔기 때문에 누나에게 밥값을 주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돈 모이는 게 없더라고. 저는 그때 당시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이면 성동극장이라고 두 프로씩 상영하는 짠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주 갔죠. 예를 들면 <연애졸업반>, <아카시아 꽃잎 필 때> 하튼 많았습니다. 그런 취미 생활에 좀 쓰다 보니까 돈 모을 것이 없었어요. 돈도 얼마 되지 않았고.

최종인 재단사랑 미싱사들은 돈을 모을 수 있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월급으로 돈을 모을 수 없어요.

김영문 그렇죠. 보조 때는 모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이승철 아까 경력 얘기했잖아요. 하나 덧붙이면 사장이 전에 일할 때 얼마를 받았냐고 꼭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 받았다고 뽕쳐서 얘기하면 (웃음) 플러스 되는 거지 경력만 가지고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었지.

그리고 현재나 종인이나 김영울이를 통해서 우리가 68년도부터 계속 알고 지냈고, 69년도 들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셋이서 등산을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친했고요. 개 김영울이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공장도 엄청 깨끗하게 치우고 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통 애들 옷 사주는 때가 추석하고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시장이 제일 바쁜 때가 가을 들어서 추석 한 달 정도 앞두고부터 구정 설 앞까지예요. 야간작업을 많이 할 때는 한 달 가까이도 했어요. 설이 조금 더 남았을 때는 새벽 2시까지 해. 네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7시부터 일을 했는데요. 우리 공장 같은 경우 바빠지니까 시간이 늘어나. 설날이 가까워지면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두 시간 자. 그러면 아주 잠이 달아서 죽죠.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당시에는 미싱모터가 수동이었어요. 발에 마는 판자 두 개에 각각 전기선을 붙여 발로 밟았다 놓았다 하면서 미싱을 돌리는데, 미싱사들이 장시간 일하고 거의 잠을 못 자니까 미싱질을 하다가 깜빡 졸아서 발을 밟고 있으면 전선이 합선돼서 미싱사 앞에 안이 보이지 않게 쳐놓은 천에 불이 붙어 달려가 끄기도 하고, 타다닥! 순간적으로 미싱 바늘에 손가락이 박히는 사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잠 깨는 주사를 맞았다든지 그런 건 없었고요. 잠 안 오는 약을 먹었던 것 같애. 공장장이 가지고 있다가 미싱사들이 “삼촌요, 약 없어요” 그러면 가져다줬던, 그 기억까지는 있어요.

4. 평생의 인연

이수호 그 문제는 뒤에서 작업환경이나 힘든 일에 대해 얘기할 때 자세히 말씀하기로 하고요. 아까 종인 씨가 살짝 꺼내다가 끊겼는데 사 모님하고 만나게 된 동기와 연애 이야기.

최종인 연애는 아니고요. 당시 제가 열여덟 살이었고, 와이프를 만날 때는 스무 살이었어요. 공장을 옮기고 그곳에 재단보조로 들어갔는데 스펀지 속에서 자고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잖아요. 미싱사들이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공장에는 의류 기술자가 있습니다. 미싱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류 계통에서 잘하는 사람은 잠바를 만드는 사람이 최고 기술자예요. 공정이 복잡하고 아주 견고하게 박아야 되거든요. 잠바는 곱게 미싱을 돌려야 해서 잠바 미싱사들이 최고 일류 미싱사들이예요. 그다음 작업복은 대충 보조급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잠바 외의 기타 신사복은 그때 별로 취급을 안 했죠. 당시 이승철 공장의 미싱사들이 최고 미싱사들이었어.

이 공장집도 고급 미싱사들인데 그중에서도 한 미싱사가 곱게 만들면서 숫자를 많이 뽑는 사람이 있어요. 미싱사가 여러 갈래인데 기술이 서툴러 느린 사람도 있고 거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중에 아주 잘하는 사람이 그 공장을 지휘하죠. 미싱사도 일하는 사람들의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미싱사 위주로 한 공장이 돌아가는 곳은 재단사가 함부로 못 해요. 재단사도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이수호 재단사를 갈아치운다?

최종인 그럼요, 재단사도 갈아치울 수 있어요.

이승철 파업도 하잖아.

최종인 미싱사가 갈아치울 수 있어요. 재단사가 월권한다고 해서 갈아치울 수 있다고요. 같은 한 공장에서... 그런데 그중에 한 미싱사가 내가 노상 감기가 걸려 있으니까 불쌍했나 봐요. 내가 돈이 없잖아요. 약 사 먹을 돈이 없었거든요. 옷 하나를 사 입고 하숙비 주면서 겨우 먹고사는 그런 생활이었으니 돈에 여유가 없죠. 당시 미싱사였던 와이프랑 와이프 친구하고 둘이 노상 약을 사다주면서 안쓰러워했어요. 어떨 때는 일요일에 나오라고 해서 저녁도 사주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 와이프가 집에 한번 놀러 가자고 해서 놀러 갔다가 지금까지 인연으로 삽니다.

모두 (웃음)

임현재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모르고 있었을 때야. 집에 갔는데, 그때는 이불이 하나였어. (웃음) 한쪽에서 와이프가 자고 애는 반대편에서 자는데 발가락이 닿아 있잖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애 발가락이 꿈쩍꿈쩍 떨하니까 저쪽에서 꿈틀꿈틀. (웃음)

이수호 스스로 신호를 보냈구나. (웃음)

임현재 이런 대화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웃음)

이수호 그런데 임현재 선생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웃음)

임현재 저는 일찌감치 노조에서 상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근을 하고 우리 와이프 유정숙은 비상근으로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부녀

부장으로 상근을 하게 되었어요. 밖에서 비상근일 때 보는 것과 막상 상근 하면서 보는 것들이 다르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느라고 다방에서 대화를 자주 하다가 쪽 연결이 되어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한 셈이죠. 감정은 있었지만 그때는 감히 여성하고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불경시되었다고나 할까, 위험 시되는.

그래서 승철이라고 노상 하는 이야기나 즐겨 부르던 노래가 “나도야 한 때는 잘난 놈이었다만 노동운동 하다 보니 주머니가 비었다”였죠. 연애도 못 하고, 이런 타령조로 중얼거리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유정숙이랑 같이 근무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대화가 상당히 진지하게 이루어졌죠. 거기에 사적인 감정까지 있었으니 그렇게 긴 시간 대화를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았겠죠. 어느 날 한번은 훌쩍훌쩍 울고 있길래 바람 쐬러 가자고 데리고 나가서 광나루 어디, 칸막이가 돼 있는 곳에서 저녁을 시켜 놓고 있는데 마침 전기가 탁 나갔어요.

이수호 (웃음) 찬스다.

임현재 찬스였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키스 한번 했다고 네 거 된 걸로 생각하지 마라”고 단호히 선언을 하더라고요. (웃음) 그래도 내가 유정숙이를 좋게 봤던 것은 책임감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이 좀 못났어도 무시하지 않겠구나 했었던 거지. 그런데 그건 빗나가더라고요. (웃음) 우리 부모한테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아, 며느리로서는.

이수호 (웃음) 참. 아무리 잘해도 효자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웃음) 우리 승철 씨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승철 최종인이는 72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현재가?

임현재 76년도.

이승철 76년도에 했고, 친구들은 보통 77년도.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하니까 나도 결혼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선을 봤는데 전순옥이 친구들을 다 만났어. 전순옥이 친구가 한 10명쯤 되는 거야. (웃음) 다 만났는데 나하고 결혼 상대는 아닌 거지.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내가 노동운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쯤에서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해. 상대방이 “저 사람 안 되겠다”고 말하게끔 하는 거지. 왜냐면 전순옥이 친구니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애. 그리고 내가 엉뚱한 제안을 하면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다가는 고생 직사하게 하겠다’ (웃음) 이래서 다 안 됐어요.

계속 그렇게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73년도에 노조 바깥에 나와 있다가 75년도 노동교실 개관 때문에 들어가니까, 그때 최종인이 있을 때 경리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서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내가 다시 노조에 들어가서 종인이가 물러날 때까지 같이 근무를 얼마 정도 했어. 당시 내가 할 때 경리도 그만두고 다 같이 나갔거든요. 그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76년도 7월인가 내가 지부장으로 있을 때 가을에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교실에 다들 모여 있는데 승조가 우리 와이프 될 사람을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운동장에서 만나서 지금 붙잡혀 왔대요. 명동의 한 백화점 문방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소선 어머니가, “미스 김아. 너 지부장한테 시집와 버려라” 하니까 “아, 아네요” 이런 부정도 없이 그냥 가만있더라고요. 그래



한미사 공장에서 동료들과 함께(오른쪽 전태일), 1966년, 전태일재단.

서 내 생각엔 ‘울 마음이 조금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11월쯤 됐는데 결혼식장을 갔다 오다가 명동 쪽에 가게 됐어요. 명동에서 집사람에게 차 한잔하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 한잔하면서 듣다 보니 전명순이가 소개를 해서 선보려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선본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마음이 통했어요. 내가 우물쭈물하고 시간만 보내니까 우리 집사람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렇게 결혼하기로 해서 날짜를 잡고 부랴부랴 4월달에 결혼을 했죠.

이수호 인연이 따로 있었네요.

이승철 그렇죠. 여담이지만 내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냐고 물

어보니까 노동조합에 같이 있을 때 그때 너무 열심히 하더라는 거야. 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뭐든지 밥은 먹고 살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다고 그래. 다른 건 전부 나쁜데. (웃음) 그것만 눈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웃음)

이수호 영문 씨는?

김영문 저는 사실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공장생활을 쪽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노조 활동을 하고 그랬지만 저는 군대를 가야 했기 때문에 노조에 참여하지 못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와이프랑 같이 일을 했어요. 와이프는 미싱사였고 저는 재단했으니까. 그때는 재단사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돈도 어느 정도 벌고 그러니까 금방 넘어오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군대 가기 전부터 연애를 했어요.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친구하고 상당히 오래도록 연애를 했는데 군대 가서 상병쯤 됐을 무렵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웃음) 내가 자취를 바로 그 친구 집 옆에서 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집에다가 짐을 맡겨 놓고 갔었거든요. 부모님도 근처에 있어서 밥을 먹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으니 결혼까지 진짜 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되더라고. 인연이 안 되니까.... 지금 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5. 가혹한 노동환경

이수호 네 번째 쪽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당시 노동환경과 근무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간간이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보충하고 정리하

는 겹해서.

평전에 따르면 당시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작업환경이 몹시 열악했습니다. 화장실, 음수시설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도 부족했고, 다른 복지시설은 전무했죠. 공장도 너무 열악했구요. 당시 작업장의 풍경은 면적이 8평, 높이 1.5m 정도의 창문도 없는 다락에서 15시간 동안 30여 명의 노동자가 허리도 펴지 못한 채 미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원단에서 나오는 먼지, 천조각, 화학물질 등을 호흡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종인 씨는 거의 산재 수준이고 승철 씨도 기관지가 지금도 안 좋고, 계속 감기가 온 것도 그때 그런 작업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소화불량, 위장병, 만성피로, 류머티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폐질환까지 앓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선생님 본인이 직접 겪은 가혹한 노동환경이나 질병 또는 실제 중대한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노동자들의 상황 등, 기억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노동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항의하거나 고쳐 보려는 노력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장 안에서도 시다가 가장 취약하고 심했을 텐데 어느 정도였는지. 또 당시 평화시장의 의료지원체계는 있었는지. 기계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아까 줄면서 미싱 밟다 다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셨는데 재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국가에서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였는지. 실제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종인 근본적인 의료지원체계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주어진 환경에서 일하고, 한 달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것밖에 몰랐죠.



평화시장 다락방 봉제공장, 1973년, 청계천박물관(노무라 모토유키).

전태일을 알고 나서 환경이 아주 나쁘구나 하는 것과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는 걸 알았지 그전까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까 이승철 씨가 이야기했지만 미싱사들이 전기로 미싱을 돌리죠. 지금은 자동이지만 그때는 수동이란 말입니다. 수동으로 미싱을 밟으면 미싱사들 다리가 굉장히 붓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다리가 통통 부어서 절뚝절뚝 겨우 일어나 집에 가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루 종일 밟고 있어 봐요. 드룩 드룩 드룩. 이게 수동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 당시는 전부가 다 수동이에요, 수동이고.

작업환경은 평전에 나온 내용 그대로인데요. 15평의 공장이, 규모가 있다면 2층 10평 정도가 다락입니다. 재단도 하고 자재도 올라가는 곳, 사다리 있는 5평 정도 빼고, 15평이면 25평의 공장을 운영하는 거죠. 거기에 미싱이 들어 있고 그 위에서 재단을 하고. 그러니까 3미터라면 1미터 반 정도, 2층에서는 무조건 구부리고 다녀야 되고 1층도 마찬가지죠.

전기는 옛날에는 다마라고 붉은 백열등, 이것을 켜으니 눈이 나빠지죠. 환경 이야기하자면, 환풍기라는 것은 겨울이라 온풍시설 안에 바람 들어올까 봐 없고, 여름에는 문을 조금 열어 놓습니다. 겨울에는 다 방음으로 처리해서 문을 닫죠.

다들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런 환경이 나쁘다 어쩐다 우리가 어떻게 불만을 표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고, 또 우리가 일을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각자가 가진 노동력이었죠. 우리가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우친 것은 태일이가 “친목회를 만들자, 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런 법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이런 환경이 나쁜 거구나’ 깨닫고 불만을 얘기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해야 하는데, 건강진단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받아본 적도 없고요. 노조가 생기고 나서 그 난리 속에서도 건강진단을 상가에서 하는데 각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종업원들이 형식적으로 해요. 거기다 엑스레이에 필름도 안 넣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건데. 건강관리보호를 정부에서 해준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해요.

이승철 아예 없었다고 봐야죠.

최종인 전혀 없었어요.

이수호 승철 씨 공장은 컸잖아요. 거기는 어땠어요?

이승철 공장은 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지가 전깃줄 위에 눈 쌓이듯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털면 소복이 쌓인 눈을 청소하듯 청소를 해야 하는 환경이었고. 미싱모터가 수동이다 보니 전선

두 개가 합선되어 미싱사들이 손가락을 다치는데 보통 바늘이 손톱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재단보조나 재단사가 펜치를 가지고 딱 잡아당겨서 빼고 거기다 미싱기를 한 번 발라요. (웃음) 그리고 붕대를 둘둘 감으면 끝나는 거죠. 미싱사들이 일을 안 하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공장 같은 경우는 대인복은 전부 미싱사와 미싱보조가 있었어. 거기에 시다가 둘이 있었어요. 미싱사는 그 세 사람 월급을 또 줘야 해. 자기가 일을 많이 해야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내가 가슴으로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일이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웠던 이야기예요. 작은 공장에서는 한 번은 미싱사들이 “재단사요, 재단사요” 하고 다급히 나를 불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애가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이 재 빨리 보내야 돼요” 그러더라고. 나는 멋모르고 “예, 예” 그랬는데 보니까 여자애가 생리를 해서 피가 묻어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옆에서 “재단사요, 빨리 보내요. 보내” 다그치는 바람에 보낸 적이 한번 있어. 여성들의 생리휴가 등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그때 당시 환경이 나쁘다 어떻다 하는 건 우리들한테,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사치였는데요. 71년도에 건강진단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6천백명 명이 했어요. 그 통계를 보면 33퍼센트가 폐질환으로 나와요. 나중에 사업보고서에 자세히 나오는데 세 상가만 해도 합쳐서 1만 명이 넘어요.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니까 노동법을 피해서 가정집 현장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실제보다 통계에 잡히지 않아 많이 안 나온 1만 5천 명쯤으로 통계가 집계됐죠.

검진을 한 사람이 6천 얼마밖에 안 돼. 미싱 근로자들이 건강진단하면 그 돈을 사용주가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용주들이 안 시키는 거예요. 몇 사람씩만 시키지. 게다가 그때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진단 안 했거든요.

자신 있게 한 사람도 33퍼센트가 폐결핵이라고 했으니까 나온 사람이 그 정도였으면, 그 당시에 엄청나게 환경이 나빴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수호 우리 영문 씨 공장은?

김영문 그렇죠.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노조 생기기 전까지 건강 진단은 전혀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미싱사들이 주로 바늘에 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톱 가운데 푹 찌고 들어가버려요. 그러면 펜치로 빼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평화시장 공장은 복도가 가운데 있어서 양쪽으로 문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창문이라는 게 안에서 밖으로 미는 식이었는데 그걸 열지 못하게 차단이 되어 있어요. 2층을 다락으로 냈기 때문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환풍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 먼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남은 기레빠시 등 재단하고 나면 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평전에도 대강 나와 있지만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열악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환풍기 시설을 해달라고 우리가 자꾸 그런 요구를 한 거죠.

이수호 임현재 선생님 공장은 어떠셨는지.

임현재 우리 공장도 똑같았죠. 처음 들어간 삼화사 같은 경우는 사람 수가 비교적 단출했고,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평화시장하고 약간 달랐던 부분은 서쪽 창은 서울음악대학교 교정이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는데 창문은 비교적 큰 게 하나 있었고, 출입구 쪽 문은 여름 같은 때 열어 놓으면 괜찮았어요. 겨울에는 스펀지나 여러 종류의 털들을 많이 쓰

고 원단 자체도 화학섬유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자르면서 또는 미싱일 하면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장들도 그렇고 서로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최종인 불만이 없었지.

임현재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장이 챙겨서 환경을 미리미리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태일하고 같이 노동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외칠 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됐다는 생각을 하죠. 느끼지 못하고, 문제로 보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전태일이 먼저 의식을 깨우쳐서 바보회나 삼동회에서 계속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들이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전태일 사후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엄청나게 높였고 그랬었습니다.

이수호 바보회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최종인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전태일이 우리한테 그런 문제들을 처음으로 깨우쳐 주어서 불만을 갖기 시작했지. 그리고 자주 모이다 보니까 “이거 때려 부수자” 하면서 의식도 조금씩 깨어나게 되고, 그때 젊은 20대에다 남자였고, 혈기가 있을 때니까 “야! 한번 붙자” “부숴버리자”라는 다양한 목소리의 각자 강인한 개성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뭉치게 된 거지. 평화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 착취죠. 장시간 노동과 적은 임금으로 사람을 많이 혹사시키는데도 불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수호 다들?

최종인 다들. 미싱사들의 객공제도가 근본적인 임금제도의 문제죠. 일 많이 할수록 미싱사가 많이 버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나, 기술자가 불만이 없는데 그 밑 종사자는 당연히 기술자를 따라야 되고.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단체협약 맺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임금제도를 깨야 한다. 임금제도를 깨기 위한 1차 작업으로 견습공, 시다들의 임금을 사용주들이 직불제로 하자, 이를 위해서 노조가 첫 번째 단체협약 체결 때부터 몇 년 동안 투쟁을 해서 쟁취해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임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일을 많이 시키게 되어 있다. 일본놈들 제도라고 그래요. 옛날에 도급제. 하는 대로 먹으니까 불만 없이 고개 숙이고, 환경이야 말할 수 없지.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하게 일을 하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전태일이가 나섰습니다.

이수호 사장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면 되니까.

최종인 사장은 더 많이 시키면 좋죠.

이수호 그 제도가 힘든 줄 알면서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시다들, 보조, 이렇게 내려가고.

최종인 미싱사들 자기 몸 골병드는 줄 모르고, (웃음) 열심히 했던 거고.

김영문 미싱사들은 일하는 대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오래하네 힘

드네 하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죠. 자기네들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아랫사람인 보조하고 시다 애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와 태일이가 바보회를 만들어 개선하려고 했을 때도 미싱사들은 관심이 없어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철 그런데 미싱사들도 평소에는 참고 했지만 설이나 추석 앞두고는 밤일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죽으려고 그래요.

이수호 (웃음)

이승철 하나만 덧붙이면 먼지가 많고 전구도 백열등인 그런 환경에서 일한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쉬는데요. 집에서 잠자는 게 일이지만 나가도 햇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눈을 뜰 수가 없어. 백열등에 눈이 많이 나빠진 거예요. 생각할수록 환경이 엄청 나빴죠.

이수호 아까 말씀 중에 숨 속에서 잘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호흡기가 안 좋아졌고 지금까지도 안 좋다고, 승철 씨도 지금.

이승철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주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게 직업병이에요.

최종인 겨울에 감기 들린 채 사니까 축농증 비슷하게 항상 멍멍해요.

이수호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앓고 있다는 거죠. 승철 씨도.

이승철 저는 기침을 하죠. 그냥.

김영문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해요. 목이 칼칼한 것이 그때 만들 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죠.

이수호 예. 참 그 당시 현실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평전 이 그걸 과장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최종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과장은 조금도 없고. (웃음)
사실 그대로, 세월이 지나니까.

이수호 오히려 더 심했다?

이승철 말 못 한 게 더 많지. 지금은 생각이 안 나서. (웃음)

6. 정부와 업주들의 관계

이수호 자 이제 다섯 번째, 오늘의 마지막 꼭지입니다. 평전은 당 시 평화시장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 착취 를 통한 저임금으로 지탱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 신 재단사나 미싱사, 일부 객공, 이런 개별적 문제보다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문제다라고 평전은 이야기하고 있죠.

업주들은 이른바 평화시장주식회사를 조직해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 임금이 당연한 것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 정액제가 아니라 작업량에 비례하는 도급제를 취하고, 소

위 말하는 객공이죠. 이마저도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오야 미싱사’가 보조나 시다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노동자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들께 당시 평화시장 업주들의 출신, 노동자 대 비 소득 수준, 업주 간에 서로 담합하는 것. 요새로 말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명단에 오른 이는 취직도 안 시켜주는 일까지 있었고. 더불어 정 부와의 유착 등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보조나 시다 등 직장 내 상대적 약자는 더 무시당하고 어려움에 처했는 데 전태일은 이것을 외면하지 못했죠. 그 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 장 내 분위기는 어땠는지.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걸 보고 어떤 느낌이었 는지 또는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 이런 점들을 포괄적으로, 자기 경험 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업주와 재단사, 오야미싱사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존재했었는지. 그 당시는 노동청도 있었는데, 노동 관련 관계기관이 감 독, 감찰 같은 것들을 실제로 어느 정도 행했었는지. 재단사나 오야미싱 사같이 독립하여 업장을 차리는 경우가 있었죠. 이들이 다시 약자를 착 취하는 일에 가담했는지 등등. 자기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영문 씨부터.

김영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돌이켜 보면 당시는 견습공들도 춥고 배고플 때니까 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 고, 그래서 더욱 기술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 죠. 그랬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나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선 정말 생각 하지 못했던 거였고. 제가 알기로는 68년도에 바보회가 만들어져요. 그 때 전태일 이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같이 들으면서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바보회에서 먼저 실태조사

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감독관실에 갔었지만 시큰둥하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아무야 끝나버린 거예요. 당시에 열악한 노동 실태의 심각성을 근로자 자신들은 너무나 모른 거예요. 전태일은 그래도 많은 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꾸 이야기하고 또 개선하려고 설득하며 노력했는데 사실은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시다.

이수호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업주, 업주하고 재단사 그리고 오야미싱사. 오야미싱사는 그 당시 공장에서는 사용자급이죠?

임현재 사용자급이죠.

이수호 사용자급 그 밑에 보조, 또 미싱사 중에서도 실력 없는 미싱사. 이런 사람들은 하층. 그 위에는 업주하고 재단사 그리고 오야미싱사. 구조적으로 객공제도. 그런 구조를 이용해서 담합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문제들.

최종인 평화시장에는 평화시장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수호 지금도 있죠?

최종인 네. 주식회사 이사진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공장들이 규모가 되게 커요.

이수호 공장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최종인 주식회사 이사진의 공장들이 보통 30명, 40명씩 고용을 해요. 이사진들은 점포를 자기 앞으로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평화시장은 원래 서울시에서 하천 부지를 불하받았어요. 평화시장 내 큰 사업체들이 불하를 받아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대개 와이셔츠, 잠바 등을 취급하는 큰 업종이예요. 공정에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규모도 커야 해요. 이사진들이 규모가 큰 업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평화시장주식회사를 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임금제도와든지 노동환경이라든지 정부의 묵인하에 자기들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백곰표, 미진사 이런 큰 공장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수호 그 당시에.

김영문 평안표.

최종인 그리고 큰 공장들이 전국에 업체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장사꾼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이사진들이예요. 평화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주식회사에 모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화시장을 건축하고 동화시장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동화시장주식회사 사장이 정치에 관계를 해요. 당시 중구 공화당 부위원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일대에서 엄청난 자산가고, 점포도 많이 가지고 있죠. 동화시장 주식을 거의 다 소유하다시피 해서 동화시장을 새로 지은 거죠. 이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정보를 뺏아 그 다음에는 강남상가라고 상가건물을 짓습니다.

김영문 영동 개발될 때.

최종인 영동시장. 서울시에서 정보를 뽑아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예요. 그리고 상가 대표들이 평화시장이라는 구조 자체에 열악한 환경을 조성했죠. 이 사람들은 근로자들의 환경이나 임금체계나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오직 돈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 밑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반면에 객공제도, 도급제 이게 병폐인데 우리는 몰랐죠. 미싱사들이 우리한테 “기술자들은 일 많이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데 너희 시다들은 그렇게 일해서 재단사 되겠냐”고. 그 기술자들이 주도해서 공장을 끌고 가다시피 하죠. 공장 책임자는, 재단사는 도급인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나이 먹은 미싱사들, 미싱사들은 거기에서 돈 벌어서 자기 동생들 공부 가르치고, 부모들 도와주죠. 미싱사들 스스로 일을 많이 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제도라고 보이죠.

이승철 제가 덧붙이면요. 유인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유인규는 키가 아주 크죠. 그 사람들이 그때 김두한 세력과 대립하는 이정재 그 밑에 있는 깡패 조직이었습니다. 유인규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깡패집단과 종로 깡패집단하고 싸움이 났는데 인정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장사를 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땅을 불하받는데 그걸 반쪽만 받았어요. 반쪽은 사유지이고. 그 땅을 50년 쓰는 조건으로 받았다는데 지금도 철거를 못 하고 있죠.

그 깡패집단이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유인규가 당시 서울시 공화당 부위원장과 중구위원장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과 권력집단이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

했는지 세금 문제나 다른 기타 문제 등이 그들의 손에서 많이 좌지우지됐죠. 웬만한 사용주들도 그 사람들에게 덤빌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도 노동문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죠.

최종인 유인규를 중심으로 한 이사진들이 평화시장하고 통일시장까지 장악한 권력자야. 그 사람들에게 웬만한 업자들이 대들지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회사에서 방침으로 어떤 것이 내려오면 공장도 노터치. 노동청에서 나오긴 하지만 노동청은 회사만 들르고 공장은 안 들렀어요. 회사로 가서 몇 가지 물어보고 마는 그냥 행정업무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박정희 때 공화당 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무슨 위원이었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정보를 뽑아다 돈을 벌어서 주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사진들 모집해서 또 투자를 하고. 그 사람들 후손들도 일확천금 부자들이예요. 아까 승철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권력 구조에서 지금까지 약자들은 억압당해왔던 거죠.

임현재 지금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재산을 불려가는 과정이고. 해방과 6·25를 겪으면서 적산땅이라든지 하천 부지였던 땅이라든지, 북한에서 월남하여 자기네들 살기 위한 본능에 눈을 빨리 떴던 거죠.

평화시장에서 조금 잘못 변화된 부분이라고 하면 너무 영세한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돼요. 어떻게 보면 미싱사나 재단사가 자기 공장이나 자기 점포를 가지는 것이 빨리 성공하는 방법도 되겠죠. 임금노동자에서 탈출하고 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은 괜찮다, 제도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항상 영세하죠. 근로조건이나 임금 같은 것들이 평준화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솜씨나 맵시 등은 세계적 수준인데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유럽 쪽에 패션산업을, 패션시장을 다 내주고 있는 경우도. 만약에 조금 더 규모 있게 발전을 하고 근로조건도 개선을 해서 젊은 노동자들이 다시 여기에 들어와 일하고 싶은 사업장으로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은 되지 않았을 거다 싶어요. 어떻게 보면 임금노동자 생활을 탈출하기 좋을 수도 있겠지만 늘 영세하게 운영하다 보니 나중에 늙어서 환갑이 되고 칠순이 됐을 때까지 미싱사를 하죠.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숫자가 상당해요.

이수호 어떻게든 그 당시 자본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불손하고, 정말 비도덕적인 성격이었고. 그걸 국가나 정부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끼리 경쟁시키고. 객공제도라는 걸 도입하면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다 재단사 출신들이란 말예요. 재단사는 지금 보면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재단사로 일하면서 사장들하고 결탁해서 밑에 시다나 보조들을 괴롭히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웃음)

모두 (웃음)

최종인 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누구를 괴롭힐 인물은 못 되고요. (웃음) 친구들이 정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애들 보기만 하면 안쓰러워했죠. 정이 많아서 여기 이 자리, 끝까지 서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수호 (웃음) 자기 재단사 시절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마음이 아팠다든지.

김영문 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 했을 뿐이에요. 그때 당시 66년, 67년, 68년 하여튼 70년까지 거의 사장이 원하는 대로 갔었던 거고. 말했듯이 사장들한테 쉽게 대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을 사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았나 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69년 70년도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평화시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여기 있는 친구들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안정된 곳에 있었지 않았나. 원래 외부 쪽이 더 열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호 우리 승철 씨는 재단사 하시면서?

이승철 제가 처음 들어갔던 공장은 도박해서 망했고. 그다음에 갔던 공장집은 택시사업해서 망하고. (웃음) 그다음에는 재단사로 갔는데, 그때 나한테 애들 문어다리, 모자다리 등을 누비는 공임 문제로 얼마 받고 싶냐고 물어봐서 내가 얼마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장은 내 말대로 다 들어주었고요.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는데 전태일이 재단사가 되면 자기가 근로자들을 대변해서 대우를 받게 하겠다 그랬는데 안됐다고 했잖아요. 사용주들 나름대로 문제도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재단사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는 사장도 많아요. 그때 당시는 옷을 만들면 무조건 팔렸고 팔리니까 돈은 무조건 버는 거고, 그러니까 사장이 더 많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용주들은 재단사들의 의견에 따라서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재단사 하는 동안 두 공장에서 두 번쯤 의견을 냈는데 사용주가 거의 들어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임현재 조정은 했지.

이수호 그래서 전태일이 나도 재단사 되어야겠다, 그래야 아랫사람들의 근무조건도 좋게 해주고 공급도 합리적으로 하겠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임현재 다른 사람은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승철이는 성격 자체가 상당히 공정성 있어요. 그래서 동신사에 있을 때 시다들하고 미싱사들한테 사이즈까지도 오늘은 작은 사이즈를 내줬으면 다음에는 큰 사이즈를 내주고, 그렇게 공정하게 분배를 했던 것 같고. 물론 저희도 재단사 할 때 그렇게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노동운동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자기 사업을 했는데 노동자를 고용한 게 아니라 와이프하고 둘이서 부지런히 만들고 찍고 그렇게 장사를 했고.

우리 셋은 그래도 공장을 가지고 제조업 사업을 했기 때문에 노동운동 할 때의 마음가짐과 현실적으로 자기가 직원을 데리고 공장을 운영하며 일했을 때의 입장 차이, 이런 입장 차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갈등도 됐죠.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는 직원의 처우를 더 낮게 해줘야지라는....

결국 나중에는 조기 폐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잖아요. 노동시간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대단히 컸고. 그때는 웬만큼 하면 일을 별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이익 대비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매출 대비 인건비하고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원단값은 어디로 없어져버리고, 아이구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재단사한테 그대로 물려줘버리고 손을 뗐어요. 그랬듯이 역시 제조업을 하면서는 노동조합 활동할 때 그 마음의 일관성을 좀 잃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수호 당시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한 봉제업계의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 그 속에서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다나 보조나 더 어린 사람들.

최종인 그런데 그 당시에 의류제품 판매사업은 만들기만 하면 팔려요.

이수호 만들기만 하면?

이승철 겨울에는 하여간 없어서 못 팔았지.

최종인 경기가 호황이었지. 그때 당시 내가 들어올 때도 의류업은, 평화시장이 의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동양 최대의 장소다라고 다 알려졌어요. 서울 올 때도 그렇게 알고 왔고. 우리도 도매로 끊어다가 지방에서 또 도매를 했던 거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용주들의 구성이 이북 사람이예요. 되게 크게 하죠. 동화시장주식회사 대표들도 전부 이북 사람이예요. 종업원을 4~50명 가진 규모가 다소 큰 잠바집은 대개 이북 사람이 해. 한 50퍼센트 정도는 이북 사람들이 피난 와서 여기서 성공한 예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오직 열심히 일만 하지 다른 건 모르잖아요. 열심히 일한 뒤에는 뒤끝이 있다, 일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맞아요. 우리도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월급을 제대로 받고 성공한다고 봐요.

임현재 그렇지 않아, 이 사람아.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데. (웃음)

최종인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너하고 생각이 달라, 나는.

이승철 처음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종인이가 말한 게.

최종인 내 사고방식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되는 게 없다고 봐요. 어떤 경우에도 그 환경에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임현재 그 말이 잘못된 게 그럼 지금 가난한 사람은 다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냐? (웃음)

이수호 하여간 당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실제로 그랬다 이진데. 지금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평화, 통일, 동화 이런 말들이 다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의 생각, 염원이 담겨 있는 단어잖아요.

최종인 네, 맞아요.

임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비교적 그래도 자기가 생활하던 터가 있으니까 그대로 타성에 젖어 있다시피 하며 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왔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전쟁통에 피난 오다시피 쫓겨왔으니까 더 악착같이 일을 한 건 사실이죠.

이승철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도망 온 사람들은 소위 사상적으로 부르주아라고 봤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그것에 반대하고 온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없지요. 자기들이 부자로 살다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직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절대 동정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종인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도급제라는 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제도 아니요. 그 제도를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실시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수호 자본의 불온함 그런 데다가, 국가나 정부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승철 제재를 하지 않고.

이수호 방치를 하면서 평화시장 내에 구조적인 모순이 생기고 결국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어려운 노동자들의 삶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다음으로 가면 전태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건 아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승철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같이 재단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 아무 의식이 없었지. 우리도 전태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혹시 그렇게 됐을지 모르는데. 재단사들이 나가서 공장을 차리고, 점원하고 결혼을 하는 결말이 제일 환상이었어요. 재단사가 옷을 만들면 점원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운영 방식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더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악순환이 되어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수호 혹시 촬영감독님들이나 작가님께서 쪽 같이했는데, 보충

으로 더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작가님?

김대현 말씀 잘 들었구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성별이 남성분이 많이 종사를 하셨고, 미싱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종사를 하셨는데 성별로 나뉘는 차이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미싱이 선호되고 재단이 선호되는 게 미싱 같은 경우는 성과급제로 일종의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재단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분배하는 역할이고 권력적인 측면이 있을 테니까 선호적인 측면에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로 나뉘게 된 재단사나 미싱사.

임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싱사는 남자들도 가끔 있었어요. 비율은 얼마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수호 전태일은 미싱사로 시작했잖아요.

임현재 미싱사는 있었고. 미싱사도, 남자 미싱사가 맡은 경우 오히려.

이승철 대인복은 거의 남자가 했어, 잠바.

최종인 수입이 좋아.

임현재 능률도 더 오르고 수입도 더 많았었고.

최종인 한 10퍼센트 정도.

임현재 그때는 재단사는 으레 남자가 하는 걸로 알았지. 나중에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 중 여자도 디자이너를 거쳐서 재단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당시는 재래식 방법인 귀동냥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남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승철 그때 당시 재단사는 가다나 재단만 하는 게 아니라, 4층에 공장이 있으면 원단이 들어올 때 재단사도 1층에서부터 그걸 메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사실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인 자동 칼이 없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기다란 칼로 원단을 쭈시고 잘라야 하는데 힘도 굉장히 소요돼요. 힘없으면 자르지 못해요.

이승철 지금 재단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생각하기에 간단한 것 같아도 원단을 높이 쌓았는데 똑바로 자르지 않고 약간만 비틀어져도 밑에 쪽은 작아져서 옷을 못 만들게 돼요. 이것을 똑바르게 하는 기술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이수호 특별히 성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승철 예. 그것 때문에 나뉜 건 아니고.

이수호 일의 성격상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전통적으로.

최종인 남자 미싱사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 됐어요. 당

시도.

이승철 대인복 만드는 데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잠바 같은 거 박는 곳에는.

최종인 대인복 만드는 곳은 대개 남자도 전체 미싱사들의 20퍼센트 정도를 넘고. 왜냐면 미싱 기술이 있으면 수입이 좋거든요. 남자 미싱사는 보조들을 두 명씩 데리고 했어요. 시다 3명, 미싱사인 자기까지 보조로 둘이니까 3명 아납니까. 그렇게 4명이나 5명으로 구성하여 한 조로 이동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승철 객공.

최종인 객공으로 저 집에 일이 많다면 저 집으로 가고. 한 조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그 집일을 도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미싱사는 완전 도급제로 자기가 맡아서 하청주듯이 시다들을 데리고 다닌다. 이러해서 한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는 남자 미싱사가 있었어요.

김영문 아무래도 힘든 일은 거의 남자들이 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재단사라고 해서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 원단 올려야 하고, 원단 풀어서 나라시도 해야 하고, 또 칼질하는 데도 엄청 힘들습니다. 15cm 나 20cm 정도 가까이 되는 걸 자르는 거예요. 똑같이 잘라야 하기 때문에 날 세워진 칼로 하거나 길게는 큰 칼로 자르고, 그런 방식이었죠.

그런 데다가 시아게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해야 하고요. 그리고 바지나 청바지집 같은 곳에서도 니혼바리라고 이본침이라고도 하는데 특종기계가 있어요. 요즘도 사용하는데 그 일도 거의 남자가 해야 하고.

이수호 미싱이지만?

김영문 예. 힘든 작업은 거의 남자들이 했어야 하고, 미싱은 여자들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수호 보충?

김대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득, 급여 말씀하실 때 재단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고 저축도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가령, 평전에 보면 평화시장 노동자가 1만 명 정도라고 나오는데 재단사로 갈 수 있는 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니면 계속 거기 있다가 재단사로 승진을 못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단사, 미싱사로 올라가지 못하고 시다나, 보조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영문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보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재단사 밑에서 재단보조.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김대현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상승되는 건가요?

김영문 급여는 다소 상승은 되겠지만 보조 월급에서 상승이 되는 거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김대현 그분들의 생계는 계속 어려운 상태로 남게 되는 건가요?

김영문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거의 기술을 배우러 올라왔기 때문에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빨리 재단사로 가는 게 최상의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임현재 재단사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은 잘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머리 발달이 다른 방향으로 두드러지는 것 같기도 해요. (웃음) 재단사로서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은 잘하고.

이승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재단보조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노동일을 간 사람도 봤거든요. 또 월급 받아도 생활을 하는 데에 부족할 때는 거의 맞벌이했어요. 부인과 같이 둘이 벌어서 살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어렵게라도 살아갔죠. 하여튼 재단보조를 계속하다가 나이 먹고 안 되니까 그만두고 노동일을 한다는 사람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이수호 촬영감독님은?

허철녕 괜찮습니다.

이수호 됐습니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전태일평전』과 함께, 당시 노동자들의 삶과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처한 가혹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한 전태일이

동지를 구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평전의 3부가 되겠습니다. 「바보회의 조직」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꼭 읽고 마음속으로 정리해보시길 바라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노동구술기록 진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